

Safety Zoom in

대형사고 예방 위해 민간재해예방기관 역량 결집
국내 300여 기관 대표자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 개최



국내 모든 민간재해예방기관들이 대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5월 7일 경기도 일산에 소재한 킨텍스에서 국내 300여 개 민간재해예방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결의대회 및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현장에서 주로 활동하는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역량을 결집하고, 재해예방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결의대회에서 백현기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신진규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장 등 참석자들은 △산업현장 위험요인 발굴 △사업장 자율 안전시스템 구축 지원 △산재예방 실천문화 확산 등에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토론회에는 대한산업안전협회 윤경채 안전기술본부장, 조영수 안전교육본부장 등 23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실천방안과 산재감소 방안을 논의했다. 축사를 통해 백현기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올해 산재예방사업의 중점을 현장성 강화와 적시성 향상에 두고 있다"라며 "효과적인 현장 활동이 전개돼 산재예방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